2024년 11월 10일 주일 3부 예배 [허남길 목사]

디모데전서 2:5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알지 않으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옛날 책이지만 팡세라는 책이 있잖아요. 파스칼이 쓴 소설인데 읽어보니까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부분이 있대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기 위해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착하게 살아지지도 않고 또 착하게 산다 해도 여전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도 역시 아니더라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지식을 많이 가져도 내 인생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부모보다도, 어떤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살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살아갑니다. 학교 가면 공부하고 나이 들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 낳고 애를 키우려니까 돈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늙고 병들고 시간이 자꾸 흘러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서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 많고 편하게 살고 잘 살고 인기 있고 존경받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이런 안타깝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체니까 볼 수 없으니까 만날 수 없어요. 둘째로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빛과 어둠이 만날 수 없음 같이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볼 수 있도록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에 모시면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죄 때문에 못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가 무슨 죄냐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 된 마귀의 권세로 들어가버린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죄가 없이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영원히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거 하나만 해라. 그 외에 모든 건 네 마음대로 해라.” 예수 믿는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다 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정말 당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도 당신이 선택했고, 당신의 부모도 당신이 선택했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당신이 선택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다.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불순종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둠의 권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마귀는 귀신의 왕입니다. 사람이 이길 상대가 아니에요. 디아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착하고 예쁘고 부모에게 잘해도 아빠에게 아저씨, 엄마에게 아줌마라고 하면서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가서 아빠, 엄마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거 싫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께 죄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사람을 중매해주는 중매쟁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중매쟁이여야 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 우리

의 중매쟁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증거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가 화목하게 되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 이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어둠의 권세와 죽음에서 건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 대신 고난 받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증거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종가여서 제사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이지요. 저도 죄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저주받고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음이 넓으신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면서 저 같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구원받고 치료되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제 안에, 믿는 자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딤전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행 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또 다음에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안 믿는다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아유, 나 교회 못 다녀요." 이런 분이 계세요. 교회 다니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는 다음에 가고 싶을 때 가시라고...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언젠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나와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배우고 빨리 자꾸자꾸 하라고 그러지요. 왜냐구요? 말씀은 젖과 같아서 자꾸 말씀을 먹어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더 커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뿐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요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그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만날 수 있도록 중매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면 그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다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손만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저를 따라서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소리 내서 함께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은 꼭 하나님과 사람을 중매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알고 가세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

온누리교회 055)386-0091
http://www.onnurimission.org